

80년

월, 예술로 꽃피우리



ACC는 오는 18일부터 '오월문화주간'을 운영한다. 24~25일 ACC아린극장에서 펼쳐지는 인형극 '꽃잠' (왼쪽)과 같은 기간 ACC열린마당에서 선보이는 놀이패 신명의 미당극 '언젠가 봄날에'의 한 장면. <ACC 제공>

1980년 광주의 오월이 예술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자유를 향한 뜨거운 외침은 연극이 되고, 상실의 슬픔은 노래가 되며, 평화를 바라는 마음은 춤이 되어 도시를 물들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올해도 '오월문화주간(18일~27일)'을 운영한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이자 ACC 개관 10주년을 맞는 해로, 오월의 역사적 의미를 예술로 풀어내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고 세계와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화주간의 포문은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연다. 오는 15일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치열했던 열흘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연극이다. 수도권 관객을 위한 '메모리얼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돼, 5·18 역사기행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예정이다.

이어 24일, 예술극장 2에서는 '오월어머니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과 지역 예술인이 함께 꾸미는 공연으로, 슬픔과 그리움을 노래로 승화한다. 국악인이자 배우 오정해 씨가 참여해 어머니들의 절절한 사연을 관객에게 전하며, 이 공연은 올해 일본 오사카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마련됐다.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공동 제작한 인형극 '꽃잠'은 전쟁 속에서 무너져버린 일상에서 도망쳐 깊은 잠에 빠져버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다. 난민 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코마상태인 '체념중후군'을 소재로,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전한다. 24~25일 ACC 어린이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ACC, 18~27일 '오월문화주간'...민주·인권·평화 메시지 담아 '메모리얼 투어'·어린이 인형극 '꽃잠'·'오월어머니의 노래' 등

ACC열린마당에서 '민주·인권·평화 마당극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린다. 우선 24일에는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가 무대에 오른다.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따라, 여전히 진행 중인 상처와 아픔을 창작 탈극과 소리, 춤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25일에는 극단 세이레의 '오사카에서 온 편지'가 이어진다. 작품은 제주4·3으로 모든 것을 잃고 일본으로 밀항한 한 여인의 삶을 다룬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억압과 상실의 시대를 건너온 제주인의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예술의 언어로 다시 쓴다.

교육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ACC 평화이야기 보관소'는 디지털 게임을 통해 종교, 독재, 난민 등 폭력의 역사를 배우고, 공감 능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며 갈등 상황을 조정해 나가게 된다. 오는 29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5·18 역사 현장을 탐방하며 당시 가족

의 이야기를 듣는 '가슴에 묻은 오월이야기'와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민주·인권·평화 솜품 영상 공모전', '오월이야기 퍼즐'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상욱 전당장은 "오월의 기록을 단순한 역사로 남기지 않고, 예술이라는 언어로 다시 이야기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며 "옛 전남도청 자리에 선 ACC가 5·18정신을 기억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아픔을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 새로운 희망과 상생의 문화를 쌓아가는 미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오월어머니의 노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오월어머니들.

<ACC 제공>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오는 18일 북구문화센터에서 5·18을 주제로한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을 선보인다. <도드리 제공>

국악으로 풀어내는 오월의 상흔

창작국악단 도드리 '끝나지 않은 오월'... 18일 북구문화센터

45년 전 5월 18일 일요일, 청명한 하늘 아래서 무고한 시민들이 군화발에 아프게도 짓밟힌 날.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국악 공연이 마련됐다.

창작국악단 도드리가 오는 18일 오후 5시 광주 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5·18을 주제로 한 음악극 '끝나지 않은 오월'을 선보인다.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까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더 특별한 의미의 공연이 될 예정이다.

공연은 지극히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다. 도청 분수대 앞에서 청혼하며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부부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휩쓸리면서 비극을 맞이한다. 실종된 남편과 이를 찾아 헤매는 아내의 절절한 외침이 국악의 한 서린 장단과 만나 관객의 가슴을 울린다.

이번 공연을 지휘한 김재섭 도드리 이사장은 "오월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3년 전부터 음악극 형식의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의 상황을 마주하며,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더 절실하게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무대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일상 속 '여행'이 주는 선물

이선하 개인전, 14일까지 GD30 갤러리

'살은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은 다름 아닌 여행이다. 사실 일상에서 여행만큼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은 없다. 익숙한 곳을 떠나 잠시 새로운 세상을 둘러보는 일은 새로운 경험에 비견된다.

이선하 작가가 '여행'을 주제로 전시를 진행 중이다.

오는 14일까지 GD30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여행을 조점화했다. 화폭에 부려놓은 여행지는 사계절의 소담한 풍광을 담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현재의 풍경은 동화적이면서도 신비롭다. 관람객들은 작가가 여행한 곳을 따라가며 낯선 환경이 친숙한 공간으로 전이되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여행(후포)'은 고목의 형상에 후포라는 마을의 풍경을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하트 모양의 나무 안에 담긴 동네의 모습은 정겹고 아늑하다. 작은 소읍의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온 듯한 그림은 나무의 역사를 오롯이 대변한다. 오랜 세월 풍상을 이겨낸 나무가 그러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을의 내력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여행(겨울)'은 소복이 눈이 내리는 가을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등불처럼 불을 밝힌 붉은 감은 초겨울의 풍경과 맞물려 서늘하면서도 푸근한 이미지를 드러낸다. 눈 내리는 초겨울, 낯선 여행지에서 마

주한 붉은 감나무는 지나온 시간을 사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

이 작가는 "여행은 낯선 환경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때론 과거의 추억 속으로 초청하기도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상을 벗어난 여행은 선물과 같은 감성을 선사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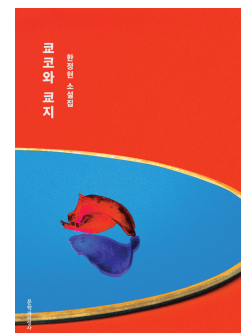
한편 이 작가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했으며 다수의 개인전을 비롯해 아트광주 24 등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국전업작가회 회원이자 회화대상전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여행(후포)'

2025년 5·18문학상 본상 한정현 소설 '쿄코와 교지'



2025년 5·18문학상 본상에 한정현 소설가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쿄코와 교지'이며 상금 1000만원.

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본상 5·18문학상 본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백무산)가 최근 심사회를

갖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상 심사위원회는 "이 작품이 5·18문학의 갱신에 값하고 있으며, 그 성취가 연쇄적으로 후속 세대의 글쓰기를 추동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작품을 이끌어가는 서술자의 당대적 감수성과 여성, 성소수자, 폭력의 문제를 비롯해 연결과 연대에 대한 모색이 수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한정현 작가는 201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소녀 연애인 이보나', 중편 '마고', 장편 '줄리아나 도쿄' 등의 작품을 펴냈다. 한정현 작가는 2021년 '문화와 사회'에 실린 '쿄코와 교지' 단편으로 부마항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5·18문학상 본상을 안긴 소설집에는 이 단편을 비롯해 총 10편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본상 외에 5·18문학상 신인상도 선정됐다. 분야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 부문 조현현 '꽃잎 속의 총구', 소설 부문 최현숙(필명 최현무) '판 후이를 위하여', 아동문학 부문 박정희 '긴긴밤 여우고개'가 수상작으로 결정됐다. 상금은 시 부문 300만원, 소설 부문 500만원, 아동문학 부문 300만원이 주어지면 계간 '문학들'에 수록될 예정이다.

신인상 응모작은 시 776편, 소설 112편, 아동문학 동화 63편, 동시 146편이 접수됐다. 신인상 심사위원회는 공통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현재와 미래로 확장하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았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24일(오후 4시)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는 오월문학제에서 펼쳐진다.

한편 5·18문학상은 5·18기념재단,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들이 공동주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근대 미술가 아카이브 자료집'

김달진미술연구소 발간



고희동, 백남준, 오윤, 천경자 등 근대미술가들 다룬 아카이브집이 발간됐다.

김달진미술연구소는 최근 한국근대미술가원자료 목록이 정리된 자료집 '한국근대미술가 아카이브 자료집'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은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발간됐으며 생존작가 대상의 원로작가디지털라이라이빙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언급한 고희동, 백남준, 오윤, 천경자 외에도 권진규, 문신, 배운성, 이상범, 전수현, 황창배 등 100여 명의 아카이브 목록이 수록돼 있다. 여기에는 단행본&도록을 비롯해, 팸플릿&리플릿, 논문&학술지, 연속 간행물기사, 신문기사, 기타 아카이브 등 6개 항목으로 목록화돼 있다.

구체적으로 자료집에는 백남준의 1419건 자료 목록이 수록돼 있다.

김달진 소장은 "이번 자료집은 50여 년 수집해온 자료 중 작가별 작품을 공개하는 사례"라며 "한 미술가의 논문 또는 연구를 위해 1차적으로 목록을 제공하며 필요 시 그 실물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디지털자료집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김달진미술연구소 누리집에서 무료 서비스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